

조·태 분규 '정화' 면 종권 갈등 없어야

김순석 관장 저서 '백년 동안 한국불교...'에서 비판

최근 조계종-태고종의 신촌 봉원사 소유권 분쟁 타결이 불교계 이슈가 되고 있다. 신촌 봉원사를 둘러싼 양 종단의 분규는 50여 년 동안 불교계 화합의 걸림돌이었다. 조계종-태고종간 갈등을 조계종은 '정화'로, 태고종은 '법난' '분규'로 각각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사건을 두고도 서로의 시각이 달라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김순석 관장(한국국학진흥원 한국유교문화박물관)이 저서 <백년 동안 한국불교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운주사 펴)에서 '조계종이 비구·대처승간 분쟁을 '정화'라는 용어로 표현하려면 1970년 1월 태고종 창종 이후 비구승단 내부에서 종권을 둘러싼 갈등이 없었어야 했다'고 비판해 눈길을 끈다.

비구·대처승의 분쟁은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대처승 사찰에서 물러가라'는 담화발표로 촉발됐다. '정화운동'은 1970년 1월 대처승 측이 태고종을 창종해 일단락됐다. 조계종이 한국불교 최대 종단의 모습을 갖추게 된 이 사건을 조계종은 '정화'라고 표현하지만, 태고종은 '법난'이라 규정하고 있다.

김 관장은 "불순한 것을 제거하고 깨끗한 것만 남긴다'는 '정화'라는 용어대로라면 적어도 정화된 집단 내부에서는 더 이상 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일은 없어야 했다"며 "수행승으로 자처한 조계종 승려들은 종권 장악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1978년 조계사파와 개운사

파로 양분됐다"고 말했다. 김순석 관장은 1978년 조계종 양분 사태의 원인을, 종정이던 서용 스님의 문중 배경이 없고 파벌색이 약했기 때문일 것이라 추정했다. 배경과 파벌이 없던 서용 스님이 종단 실무를 장악하고 친정체제를 구축하려 하면서 사태가 시작됐다는 진단이다.

김 관장은 "서용 스님은 1975년 8월 순경산 총무원장을 비롯한 부장·국장급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본사주지 발령시 종정 재가를 얻도록 했다"면서 "총무원장부터 이에 반발한다 총무원장이 양주 대성암 토지매각 대금을 유용해 구속되는 등 종단이 혼미해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순경산 총무원장 이후 박기종·고경덕·김자운 총무원장이 차례로 취임했지만 종단은 안정되지 못했다. 1977년 7월 취임한 김혜정 총무원장이 종정을 보좌해 업무를 집행할 때는 중앙종회 측에서 반기를 들었다.

김순석 관장은 "1977년 해인사에서 열린 임시 중앙종회에서 종정 불신임이 결의되고, 서용 종정이 사퇴했다. 원로회의가 종단재건회의를

세웠으나 조계종은 이미 조계사 측과 개운사 측으로 양분된 뒤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관장은 "조계사와 개운사 두 측이 서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차례 세속법에 의지했다"면서 "어떤 판결도 어느 한쪽의 완전 우위를 확인시켜 주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순석 관장은 "1980년 송월주 총무원장 체제로 3년간 계속됐던 종권 분쟁을 종식시키지 못했다. 이후에도 조계종은 내부분열을 수차례 겪었다"고 말했다. 김 관장은 "태고종과의 갈등에서 '정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조계

종이 내부 갈등을 겪은 원인은 조선-일본강점기를 거치며 교세가 위축되고 승려의 자질이 저하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김순석 관장은 "10·27법난은 비구·대처간 분쟁 후에도 혼미한 상황을 거듭해온 불교계에 제5공화국 당시 신군부가 불교계를 '정화'시킨다는 구실로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책에는 조선불교신회의 사찰령 철폐운동과 미군정의 불교정책 등 1877년 일본불교의 한반도 상륙부터 1998년 조계종 개혁 불사까지 121년간 불교계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마다 김순석 관장의 주관이 강하게 피력돼 있다.

조동섭 기자 celana@buddhapia.com



김순석 관장의 책(위)과 비구·대처승간 당시 '불법에 대처승 없다'는 퍼켓을 들고 거리행진 중인 비구스님들.

종이 내부 갈등을 겪은 원인은 조선-일본강점기를 거치며 교세가 위축되고 승려의 자질이 저하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김순석 관장은 "10·27법난은 비구·대처간 분쟁 후에도 혼미한 상황을 거듭해온 불교계에 제5공화국 당시 신군부가 불교계를 '정화'시킨다는 구실로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책에는 조선불교신회의 사찰령 철폐운동과 미군정의 불교정책 등 1877년 일본불교의 한반도 상륙부터 1998년 조계종 개혁 불사까지 121년간 불교계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마다 김순석 관장의 주관이 강하게 피력돼 있다.

조동섭 기자 celana@buddhapia.com

불교문학 그 속에 담긴 의미...

東大 한국문학연구소가 펴낸 '불가의 글쓰기...' 눈길

불교문학은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경전을 비롯해 불교적인 것을 표현한 저작물 등을 통칭한다. 근현대 이후 불교문학의 범주는 문학형식에 불교사상을 담고 있는 창작물로 확대됐다.

불교가 한국문학의 주류를 이룬 것은 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적 형태로 오랜 세월 대중과 함께 해왔기 때문이었다.

본격적인 불교문학은 통일신라시대의 향가부터이다. 향가의 작가는 스님과 재가불자가 주를 이뤘고, 내용도 불교적인 소재가 많았다. 고려가요와 설화 등에서도 불교문학은 빠지지 않았다. 고려 때 편찬된 <삼국유사>가 역사서이기 이전에 불교문학서인 것이 그 예이다.

이런 가운데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소장 김춘식)이 한국 불교문학에 고전문학 연구를 시도한 성과물 <불가의 글쓰기와 불교문학의 가능성>(동국대 출판부 펴)을 펴내 눈길을 끈다.

책은 12편의 불교문학 논문을 '불가의 사(私)문학' '유가와 불가문학' '불교학과 출판'의 세 가지 테마로 나누어 수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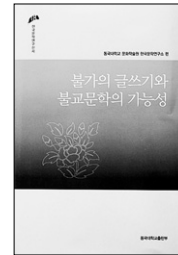
김순호 동국대 교수는 '고려 불가의 자전적 글쓰기와 그 양상'에서 고려 시기 불가에서 이미 자전적 글쓰기 유형이 출현했음을 밝혔다. 김 교수는 '고려 시기 불가에서 출현한

자전적 글쓰기는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개방적 안목으로 자아의 역사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했다'고 주장했다. 김종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주제논문 '침공현변의 글쓰기 방식과 문학치료'를 통해 침공의 서간문을 문학적 치료의 관점에서 조명했다. 침공현변 스님(1616-1684)은 조선 중기 선암사·송광사·장광사 등지에서 주석했던 선지식이다. 스님의 서간을 모은 <침공집>에는 한 시 117수와 산문 27편, '태평곡' '귀산곡' '청학동가' 등 가사 3편이 수록됐다.

김 연구교수는 침공의 글쓰기를 △내면의 상처와 결핍 드러내기 △이상적 경지 꿈꾸기 △갈등 치유와 평정 유지하기로 구분했다. 김종진 연구교수는 "침공은 조선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불교계의 모순을 가사로 읊어낸 인물"이라며 "그의 서간문에서는 개인적 충격과 아픔을 교학과 선 수행 진경과 유교·도교 사상에 탐닉해 채워나가려 한 경과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교수는 "보은과 그 실천력 목인 효도·보시·인욕 등은 불자의 덕목인 동시에 당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생활규범이었다"면서 "월인천강지곡'의 저술은 신앙·기복적 목적 이외에 백성의 교화를 위해 쓰여졌다"고 주장했다.

한국문학연구소 김춘식 소장은 "불가의 글쓰기와 불교문학의 가능성"은 한국의 불교문화와 고전문학 연구가 새로운 학문의 동력이 될 것"이라 말했다. 조동섭 기자



<불가의 글쓰기와 불교문학의 가능성>

송일기 중앙대 교수는 '백파공선과 양친거사 박치유의 만남'에서 조선후기 선지식인 백파와 태인 방각본의 주인공 박치유를 통해 한국출판사에서의 위상을 밝혔다.

태인은 조선 후기 20여 종에 이르는 상업적 출판물을 간행했던 지방이다. 당시 간행된 책은 '지방에서 출판한 서책'이라는 뜻의 '방각본(坊刻本)' 혹은 '태인판 방각본'으로 불렸다.

김기중 고려대 국문학과 BK사업단 연구교수는 '월인천강지곡의 저경과 사상적 기반'에서 '월인천강지곡'에서는 '석보상절'에 비해 <법화경>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등 추선(追善) 의식에 중시되던 경전의 비중이 약화되고, <대방광보은경> <태사대나경>과 같은 보은을 강조한 불전의 비중이 강화됐음을 강조했다.

김 연구교수는 "보은과 그 실천력 목인 효도·보시·인욕 등은 불자의 덕목인 동시에 당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생활규범이었다"면서 "월인천강지곡'의 저술은 신앙·기복적 목적 이외에 백성의 교화를 위해 쓰여졌다"고 주장했다.

한국문학연구소 김춘식 소장은 "불가의 글쓰기와 불교문학의 가능성"은 한국의 불교문화와 고전문학 연구가 새로운 학문의 동력이 될 것"이라 말했다. 조동섭 기자

東大 불교논문 박사 15·석사 22편

한서대·동방대학원대학교 차 등 불교관련 박사 논문 통과

동국대 대학원 2010년도 불학 위논문에서 박사 15편과 석사 22편의 불교학 관련 논문이 통과됐다.

박사학위 논문으로는 △불교교학 전공에 '문체(文軌)의 <인명입정리론소>에 관한 연구' (선웅 스님)를 비롯해 '보살심지사상 연구' (성기 스님)와 '<중변분별론>의 중도사상 연구' (희경 스님), '연담 유일의 일심화회사상 연구' (현석 스님), '무아와 아트란에 관한 연구' (김정근), '천태의 안반수의 연구 (정문용)'가 △응용불교학 전공에 '사십구재와 우란분재에서의 유족심리 치유에 관한 연구' (이범수)와 '시장자본주의 대안으로서의 불교 자본주의 연구' (윤성식), '초기불교 문헌의 기(記)와 무기(無記)의 사유구조 연구' (신병삼), △불교사학 전공에 '<화엄경문답> 연구' (장진영)가 있다. 또 △선문화 전공에 '혜심의 <선문염송> 연구' (영석 스님)와 △선

종사 전공에 '경봉선사 연구' (정도 스님)이 △인도불교 전공에 '쉬바파 일원론의 연구' (심준보) △한국사학 전공에 '조선 후기 불교의 수행체계 연구' (이종수) △미술사학 전공에 '한국 나한도 연구' (신광희)가 있다.

석사학위 논문으로는 △불교교학 전공에 '산파라시타의 유가행파비판 연구' (현서 스님)와 '<구사론>의 행상(行商) 연구' (승행 스님), '티벳불교 승원의 논리학 입

문서 두라의 연구' (최경진), '<유가사지론> 오사장(五事章)에 나타난 수행론 연구' (상묵 스님), '아함해장에 대한 연구' (원범 스님), '설령 화엄사상 연구' (철우 스님), '몽골과 고려의 불교교류에서의 밀교적 영향 연구' (템브렐)가 △응용불교학 전공에 '<염불경>을 통해 본 당말 정토사상 연구' (영조 스님)과 '<보살영락본업경>의 보살사상 연구' (이자평)가 있다.

△선종사 전공에는 '<석문의범>에 대한 연구' (선정 스님)이 △응용선학전공에는 '명상의 현대심리학적·의학적 활용연구' (이정은)이 △인도철학 전공에는 '자이냐교의 일체지 사상 연구' (양영순) △인도불교전공에는 '<법화경>

다라니 연구' (상국 스님)이 △한국사학 전공에는 '효령대군의 불교 신앙과 불사' (법정 스님), '한용운의 사회진화론 인식과 대응' (전덕윤)이 있다.

△미술사학 전공에는 '조선시대 석가탑상도 연구' (신지연) 등이 △유아심리전공에 '불교유아교육 과정중심 명상활동이 유아자기 통제능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연구' (정현 스님) 등이 있다.

한서대 대학원에서는 '차 문화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성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정은 스님)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통과됐고, 동방대학원대학교에서는 '초기불교의 사회적 실천에 관한 연구' (김재영)가 있다. 조동섭 기자

선리연구원 학술상 공모

3월 5일까지 논문계획서·연구실적서 제출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3월 5일까지 제4회 한국불교선리연구원 학술상을 공모한다.

학술상은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이 한국불교학 발전과 불교학 연구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마련한 상이다. 공모 자격은 불교학 분야 박사과정 수료 이상자로 불교사·응용불교·불교문화·불교음악·불교미술·불교사회복지 등 불교 관련 주

제 논문 계획서와 최근 5년간 연구실적서를 제출하면 된다.

학술상 수상자는 3월 15일 개별 통보된다. 논문상 시상식은 5월 중, 논문발표회는 10월 중으로 예정됐다. 우수상 1인에게는 500만원, 학술상 3인에게는 각 300만원이 수여되며,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선문화연구>에 게재된다. (02)734-9653 조동섭 기자

봉녕사 승가대학

2010학년도 신입생·편입생 모집 공고

본 승가대학에서는 2010학년도 신입생·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명

◆지원자격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타 강원생인 경우 1년 이상 휴학한 스님)

◆전형방법

·면접 및 필기시험
(초발심자검문, 염불실기, 불교기초지식)

◆도착일시

·2010년 3월 15일 월요일 오후 4시까지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건강진단서(종합병원 용)
5) 최종학력 증명서
6) 사진(3×4) 3매

◆준비물: 만의, 장삼, 필기도구

◆버스운행: 수원역 앞에서 봉녕사 승가대학 버스를 오후 1시 ~ 4시까지 운행함.

봉녕사 승가대학 학장 묘엄

문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48 봉녕사 승가대학 ☎ 031)256-4127 / 팩스 031)254-3371, 253-3877
• 홈페이지 (www.bongnyeongsa.org)에서 원서 다운로드 가능.

봉녕사 금강울원

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 공고

봉녕사 금강울원에서는 2010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명

◆지원자격

·강원을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한 자.
(타 강원 졸업생 스님들의 입방도 가능)

◆전형방법

·면접 및 필기시험(불교교리, 범망경)

◆도착일시

·2010년 3월 15일 월요일 오후 4시까지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울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은사스님 추천서
4)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5) 건강진단서(종합병원 용)
6) 승가대학 졸업증명서
7) 사진(4×5) 3매

◆준비물: 가사, 장삼, 필기도구

봉녕사 금강울원 울주묘엄 울원장 대우

문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48 봉녕사 금강울원 ☎ 031)256-4127 / 팩스 031)254-3371, 253-3877
• 홈페이지 (www.bongnyeongsa.org)에서 원서 다운로드 가능.